

금요 수필

천양정의 혼

천 양정은 진주에 자리한, 때
일 활시위 소리가 울리는
오래된 정자다. 300년을 넘
는 역사를 지닌 전국의 평사의
할터르, 국공을 통해 체력과 정신
을 수양한 안 전등의 정이다. 활은
구석기 시대 사냥 도구에서 출발해
한때 전쟁의 주 무기였으나, 16세
기 총이 등장하며 역할이 줄었고,
19세기에 이르러 전쟁무기로서의
수명을 다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
나 지금도 낮은 이들이 전함과 성
신 수양을 위해 활쏘기를 즐긴다.
전주에는 기록이 남아 있는 활터
가 셋 있었다. 1662년 창건된 군자
정(公子亭), 1712년의 천양정(穿陽
亭), 1766년의 읍양정(湄陽亭)이다.
그 밖에 내사정, 진북정, 옥오정 등
이 기록으로만 남아 있어 정확한
연대나 위치는 추정할 뿐이다. 내
사정은 동국여지승람에 보이며 성
안 남쪽에 있었다고 전한다. 진북
정은 전주부사 기복과 인제강원기
까지 존재했다는 증인이 있고, 진
북대 평생교육원 서편의 일부인 북
문송송의 뒤에 '진북정' 편액이 있
이 그 일대를 터로 보기도 한다. 이
렇으르 보아 현재 진북동이나 이후
천년의 풍광 좋은 곳이였을 것이라
는 추정도 있다. 옥오정은 1829년
관선전변에 지어, 50~60대 노인들
이 모여 활을 쏘며 붙여진 이름이
다. 풍남정은 기린봉 산록에서 시
작해 조경단·서신동·인후동 등을
거쳐 농서학동 읍읍에서 2000년



최 용 호
수필가

대까지 운영되다 문을 닫았다.
군자정은 용머리고개 아래 있었
으나 1767년 서문 밖 큰 화제 때
소실되었다. 그 허파이 기병당 자
리로 남아와 자신의 위치라 여겨
그곳에 재건했다. 1812년 옥영학교
창시에 군자정·읍양정·천양정을
합병하면서 군자정은 폐지되었고,
재사는 지방 사립학교 정비르 기부
되어 천양정으로 통합되었다.
읍양정은 1766년 군자산 동쪽에
창건되었다. 1918년 삼정 합정 후에
는 사립 한류학교, 사립 옥영보통
학교, 전주제2공립보통학교(현산조
교 전신), 교복대학 부속학교 등으
로 변천하며 오래도록 교육공간으
로 쓰였다. 지금은 건물이 모두 허
려 사라졌다.
천양정은 1712년 숙종의 삼두정책
을 받들어 지금의 다가공원 아래
언덕에 처음 세워졌다. 9년 뒤 홍
수로 유실되어 1722년 '다가정'으
로 개명해 중건하였고, 1830년 다가
정 구내 남쪽에 지어졌던 부속 건

물이 현재의 천양정이다.
완산 8경 중 '다가사후(多佳射
侯)'는 천양정에서 과거를 향해 활
을 쏘는 장면을 말한다. 과거에 집
중한 눈빛은 개천고, 가축을 쫓고
이끼를 빌린 자새는 당당한 선비의
기개를 보여준다. 띄어내는 손은
태산을 밀 듯하고, 당기는 손은 호
랑이 꼬리를 잡아당기는 듯하나,
이는 악전부투의 화랑정신과 다가
산·선주현의 풍광이 아우러진 한
폭의 그림이다.
전주 대사습은 영조 8년(1732) 전
주에 대사습정을 건치해 구과 초시
를 시행하던 전통을 되살려, 1974년
전통예술 부흥을 위해 부활했다.
이후 국악·농악·궁도대회를 매년
열어왔다.
국공은 예의를 두었으나 송시하
다, 등·뢰정 시 정간에서 인사를
하고, 사규를 철저히 지키며, 사대
에서는 신·구사를 구분해 차례대
로 발사한다. 남주나 흑연은 물론
단정한 복장 없이 사대에 오른 수

업다. '논어' 팔일 편에서 공자는
"군자는 다루지 않는다. 다루더라도
활쏘기뿐"이라 하여 활쏘기의
예를 강조했다. 활을 쏘려 당에 오
를 때도 읊하고, 이긴 이가 진 이에
게 다시 읊하며, 이긴 자는 아예에
서, 진 자는 당 위에서 술을 "했
다. 군자는 이기고 지는 데 쏘대었
는 변명을 하지 않는다는 가르침이
활쏘기 예법에 비유된 것이다.
천양정은 기록상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활터 중 하나로 자랑스러운
역사와 유서를 지닌다. 궁중 활터
였던 서울의 왕궁장은 유모나 보존
면에서 뛰어나지만, 황학정을 제외
하면 천양정은 일등 사정이라 할
만한 자부심을 지닌다.
활은 무예라는 점에서 칼이나 창
과 같으나 그 바탕은 다르다. 활과
칼이 용기와 힘을 바탕으로 한다면,
활은 정신 집중 위에 기술이 더
해지고 힘은 부수적으로 필요한 요
소다. 천양정은 정신을 닦는 도장
이자 체력을 기르는 운동장이고,
예를 숭상하는 학교이며, 전통을
지키는 문지기다. 이것이 바로 천
양정의 혼이다.
**최용호 수필가는 2024년 월간
'수필과비평'으로 등단했다. 수필
과비평작가회의, 전북수비, 전주꽃
발정이수필문학회, 전주파성한사회
회원으로서 활동하고 있으며, 현재
전주꽃발정이수필문학회 회장으로
있다.

사진으로 보는 지구촌 소식

“밀가루 구하기가 어려워”



3일(현지 시간) 볼리비아 라파스의 한 빵집 주인이 '배를 브레드'(마라케타 빵) 판매 준비를 하고 있다. 볼리비아 정부의 밀가루 공급 지연과 인플레이션 등으로 '국민 빵'인 마라케타 빵이 기존 100에서 동일한 가격에 60g 수준으로 줄어들자, 소비자들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다. 이와 같은 기본 식량 위기는 볼리비아의 경제 위기와 사회적 어려움을 나타내고 있다.

공동 기자회견 후 시 주식과 악수하는 마크롱 대통령



중국을 국빈 방문한 에마뉘엘 마크롱(왼쪽) 프랑스 대통령이 4일(현지 시간) 중국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후 악수하고 있다.

사설

제42회 노인지도자대학

제42회 졸업식이 11월 20일
연합회 3층 대강당에서 개최됐
다. 이날 졸업식에서 눈에 띄
것은 졸업생들의 건의로 최초
로 시행된 '졸업식 노래' 제창
이었다.
"빛나는 졸업장을 타신 언니
께"를 합창하는 졸업생은 물론
내빈까지 눈시울을 붉히며 졸
업식을 감동적으로 마무리 했
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배움에
대한 열정으로 노인 지도자대
학 과정을 마무리한 학생들에
게 박수를 보낸다. 앞으로도
어르신들의 활기찬 노후생활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행사는 오네시모 봉사단의 식
전공연을 시작으로 성황리에
이루어졌다. 시상식에서 연합
회장 표창으로 공로상 7명, 대
회장 표창으로 특별상 5명, 봉
사상 2명, 귀감상 7명, 총동창
회장 표창 2명 등 총 23명에게
표창을 수여했다.

안병춘 회장은 회고사에서
"돌아보면 즐겁고 보람된 일도
많았지만 아쉬움도 있었다"며
"그 아쉬움을 다음을 위한 밑
거름이라고 생각하며 더 나은
모습으로 발전할 수 있기를 기
대한다"고 말했다.
김두봉 연합회장은 격려사를
통해"평생학습 시대에 한 학기
동안 함께한 학우로서 앞으로
도 배움과 열정을 잊지 마시길
바란다"며 "서로 격려하고 의
지할 수 있는 친구가 되어 노
인지도자로서 사고하고 그 역
할을 다해 나간다면 존경받는
어른으로서 우뚝 설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행사는 문승우 도의장,
윤석정 전북예향운동본부 총재
겸 전북일보대표이사, 박춘
열·김옥균·심학삼·임수진
자문위원, 성이순 전북특별자
치도 고령친화정책과장, 안병
춘 노인지도자대학장과 학생
등 130여명이 참석했다.

차기 도지사·교육감 후보 여론조사

차기 전북도지사 후보로 김
관영 현 지사가, 전북교육감
후보로는 천호성 전 자문위원
이 선호도가 가장 높다는 여
론 조사 결과가 나왔다.
한국갤럽조사연구소가 한국
복지신문 의뢰로 최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
북도지사 출마가 거론되는 인
물 중 누가 전북도지사가 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냐'는
질문에 대한 응답으로 김관영
현 전북도지사가 35%로 가장
높았고 이원택 국회의원이
18%로 그 뒤를 따랐다.
안호영 국회 환노위원장
16%, 정현을 익산시장이 7%를
기록했고, 없음/모름/무응답은
24%였다. 현 도지사의 직무수
행 평가를 묻는 질문에는 54%
가 '잘하고 있다'라고 답변했
고, 37%는 '잘못하고 있다'라
고 답했다.
차기 전북교육감 선거 후보
선호도를 묻는 질문에는 천호

성 전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자
문위원이 24%로 1위를 차지했
다.
황호진 전 전북 부교육감과
이남호 전 전북대 총장은 각
각 15%로 그 뒤를 이었고, 김
윤태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
자문위원과 노병설 전 전교조
전북지부장, 유상동 전 초등교
사 3명이 모두 5%로 동률을
이뤘다.
그 외 인물은 0%, 없음/모름
/무응답은 31%로 나타났다.
이번 여론 조사는 11월 20일과
21일 이틀간 전북도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1,005명을 대
상으로 무선전화 가상번호 무
작위 추출을 통한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을 통해 진행됐다.
표본오차는 3.1%p, 95% 신뢰
수준으로, 접촉률은 45%, 응답
률은 14%로 나타났다. 자세
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
심의위원회의 홈페이지를 참
조하면 된다.

전주매일

독자 여러분의 의견이 담긴
기고와 투고를 기다립니다.

(우)560-912 전북 전주시 완산구 서노송동 568-80 송주빌딩 4층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행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인간중심 · 도덕중심 · 지역중심

전주매일